

2012년 1월 30일 보낸 편지입니다.(1,184조회)

아, 그 느낌!
あ、この感じ!

느낌은 전체적이다.
感じは全体的だ

여기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이 모두 참가한다.
ここに体と心、そして魂がすべて参加する

이것은 비밀이다.
これは秘密だ

언어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言語で表現できないから

이것은 비밀이다.
これは秘密だ

언어는 부적당하기 때문에.
言語は不適當だから

이것은 비밀이다.
これは秘密だ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教えられないから

- 타골, 라즈니쉬의《까비르 명상시》중에서 -
- タゴール、ラジニーシ<カビール瞑想時>より -

* 새벽빛이 열리는 여명의 시간,
* 夜明けの光が開かれる黎明の時間

안개 낀 옹달샘 숲길을 홀로 걷노라면
霧が立ち込めた小さな泉の森の道を一人歩けば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가 되어 전체적으로
全身と体と魂がひとつになって全体的に

느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感じられる思いがあります。言葉で形容できない

전을 같기도 하고 비밀과도 같은 오묘한 떨림입니다.
戦慄のようでもあり、秘密のような奥妙な震えです

그 떨림이 몸과 마음과 영혼의 찌꺼기를 털어내고
その震えが体と心と魂の残物を払い落として

그날 하루를 더욱 행복하게 만듭니다.
その日一日をさらに幸せにします

세상을 더욱 사랑하게 합니다.
世の中をさらに愛するようになります

다시 글을 쓰게 합니다.
また文章を書くようになります

참가 [參加]

1. [명사·하다형 자동사] 参加; 仲間入り。

명상 [冥想·冥想]

1. [명사·하다형 타동사] 冥想; 目を閉じて静かに物事を考えること。

ぎょうこう [曙光]

1. [명사] 『문어』 새벽빛.

여명 [黎明]

1. [명사] 黎明。

2. [명사] 夜明け; 明けがた。

안개가 끼다. → 안:개 출처:두산동아

霧が立ち込める。

형용 [形容]

1. [명사] 形容。

2. [명사·하다형 타동사] 事物の形。

느낌

1. [명사] 感じ; 思い; 気持ち。

전율 [戰慄]

1. [명사·하다형 자동사] 戰慄; 恐ろしくて身ぶるいすること。

오묘 [奧妙]

1. [명사·하다형 형용사] 奧妙; 玄妙; 幽玄で深遠なさま; 趣が深くすぐれたさま。

ふるえ [震え]

1. [명사] 떨림.

찌꺼기

1. [명사] 液体の底に溜った沈澱物; かす。

2. [명사] 良い物や使い物をよりとった残り物; つまらぬもの; 屑。

くもの巣を払う

거미집을 털어내다

Rajnishi ラジニース

2012년 1월 31일 보낸 편지입니다.(3,066조회)

기다림
待つこと

인생이 의미가 있는 것은
人生が意味があることは

인생 속에서 우리가 기다림을
人生の中で我々がまつことを

갖고 살기 때문일 것입니다.
もって生きているからです。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
誰かを待つこと

이것은 행복이고 설렘입니다.
それは幸せで、ときめきです

누군가를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음을
誰かにいつかまた会うことができるのを

알고 산다는 것, 사랑하는 누군가와
わかって生きること、愛する誰かと

같은 하늘 아래 있다는 것,
同じ太陽の下にいること

그것 자체가 삶의 희망입니다.
それ自体が人生の希望です

- 옥성호의《진영》중에서 -
- オク・ソンホの〈真影〉より -

*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 会いたい人がいます

웬일인지 소식도 없고 기억에서 멀어져 갑니다.
どうしたとか、消息も無く、記憶から離れていきます

'여기까지인가?' 하다가 보고픔이 그리움으로,
'ここまでか?と会いたさが、懐かしさで

그리움이 기다림으로, 기다림이 설렘으로
懐かしさが、待つことで、待つことがときめきに

바뀝니다. 멀어져가는 것이 아니라
かわります。離れていくことではなく

더 아름답게 만나기 위해 바빠
さらに美しく会うために忙しく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生きることだと思いながら

다시 기다립니다.
また待ちます

진영 [眞影]

1. [명사] 眞影; 主に顔をうつしたもの, または写真。

웬:-일

1. [명사] どうしたこと; 何事。

바빠

1. [부사] 忙しく; せわしく。

2. [부사] 早く; すばやく; 急いで。

2012년 2월 1일 보낸 편지입니다.(5,263조회)

깨달음
悟り

깨달음은 갑자기 온다.
悟りは突然くる

어느 순간, 그동안 지니고 있던
ある瞬間、そのあいだもっていた

생각을 버리고 전혀 다른 시선으로
思いを捨てて、まったく違った視線で

사물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事物を眺めるようになるだろう

바람직한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도
望ましい人生を作っていく過程も

깨달음을 얻는 것과 비슷하다.
悟りを得ることと似ている

- 리처드 J. 라이더 / 데이비드 A. 샤피로의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깨달게 되는 것들》중에서 -
- リチャード・J・ライダー/デイビッド・A・サピエロの
〈人生の半分くらい来た時気づくようになること〉より -

* 깨달음은 갑자기 온다?
* 悟りは突然くる?

그렇지 않습니다. 갑자기 오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そうではありません。突然くることのように見えるだけです

그것은 마치 물이 끓는 이치와 같습니다. 물은
それはまるで、水を沸く道理と同じです。水は

99도 온도에 이르기까지는 아무 일도 없는 듯
99度の温度にいたるまでは何も無いように

잠잠하다가 1도 더 높여 100도가 되었을 때
静かだが、1度さらに高めて100度になったとき

비로소 '갑자기' 끓게 됩니다. 깨달음은
ようやく'突然'沸くようになります。悟りは

99도까지 삶을 숙성시킨 사람에게
99度まで人生を熟成させた人に

어느 순간 갑자기 주어지는
ある瞬間突然与えられる

선물입니다.
贈り物です

이:치 [理致]

1. [명사] 理致; 道にかなった趣旨; すじみち; 道理。

잠잠-하다 [潛潛—]

1. [형용사·여 불규칙 활용] 静かだ; ひっそりしている。

2. [형용사·여 불규칙 활용] 黙っている; 口をきかない。

숙성 [熟成]

1. [명사·하다형 자·타동사] 熟成。

2. [명사·하다형 자·타동사] 十分にでき上がること; 成熟。

리처드 J. 라이더(Richard J. Leider),
데이비드 A. 샤피로(David A. Shapiro),

2012년 2월 2일 보낸 편지입니다.(1,232조회)

흙
土

튼튼한 나무가 있기를 바라고
丈夫な木があるのを望み

고운 꽃을 보기 원한다면
美しい花を見るのを望むなら

반드시 좋은 흙이 있어야지요.
必ずいい土がなければなりません

흙이 없으면 꽃도 나무도 없습니다.
土が無ければ、花も気もありません

그러므로 꽃이나 나무보다
それゆえ、花や木より

흙이 더 중요합니다.
土がさらに重要です

- 루쉰의《한 권으로 읽는 루쉰 문학 선집》중에서 -
- 魯迅の<1冊で読む魯迅文学詩集>より -

* 미래의 인물을 바라고
* 未来の人物を望んで

훌륭한 꿈나무가 자라기를 원한다면
立派な有望な子供が育つのを望むなら

이 나라 교육의 토대가 달라져야 합니다.
この国の教育の土台が変わ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교육이 곧 흙입니다. 사람을 낳는 흙입니다.
教育がまさに土です。人を生むのは土です

세상의 시선이 온통 오늘의 현실문제에 머물러 있어도
世の中の視線が、すっかり今日の現実問題に留まっても

누군가는 흙을 갈고 닦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誰かは土を磨き上げる人が必要です

흙을 살려야 사람도 삽니다.
土を生かして人もいきます

인물이 태어납니다.
人物が生まれます

흙

1. [명사] 土; 土壤。

달라-지다

1. [자동사] 変わる; 変化する。

낳다1

1. [타동사] 産む。

2. [타동사] 生む; 生じる; 作る; もたらす。

은:통

1. [부사] すべて皆; すっかり; 全部。

石材を研ぎ上げる → 研ぎ上げる 출처:두산동아

석재를 갈고 닦다.

꿈나무

[명사] 학문, 운동 따위에 소질이나 재능이 있는 아이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012년 2월 3일 보낸 편지입니다.(1,218조회)

웃음과 폭소
笑いと爆笑

지금 당장 웃어보라.
今すぐに笑ってみなさい

기분이 한 순간에 바뀌게 된다.
気持ちが一瞬に変わるようになる

지루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출근길을
退屈な息が詰まる心で通勤道中を

서두를 때 찰리 채플린을 떠올려보자.
急ぐとき、チャーリー・チャップリンを思い浮かべてみよう

그는 이렇게 말했다.
彼はこのように言った

“걸음걸이 하나만 바뀌어도
”足つきひとつだけ変わっても

관객들은 폭소를 터뜨립니다.”
観客は爆笑を噴出します”

- 리처드 J. 라이더 / 데이비드 A. 샤피로의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깨닫게 되는 것들》중에서 -
- リチャード・J. ライダー/デイビッド・A. サピエロの
〈人生の半分くらい来た時気づくようになること〉より -

* 웃음보다 강력한 것이 폭소입니다.
* 笑いより強力なことが爆笑です

웃을 일이 없고 폭소를 터뜨릴 일도 없다 해도,
笑うことがなくて、爆笑を噴出することも無いとしても

그날그날 많이 웃으며 살아야 합니다. 폭소는
一日一日をたくさん笑いながら生きなければなりません。爆笑は

대단한 일을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すごいことをして出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

가장 간단한 동작 하나로도 가능합니다.
一番簡単な動作ひとつでも可能です

작은 배려, 미소, 사랑의 손놀림이
小さな配慮、微笑、愛の手さばきが

따뜻한 웃음과 폭소를 일으켜
温かい笑い、爆笑を引き起こして

마음의 병든 세포도
心の病でも、細胞も

살려냅니다.

生かします

폭소 [爆笑]

1. [명사·하다형 자동사] 爆笑; 大勢がいつせいにどっと笑うこと。

지루-하다 [←支離—]

1. [형용사·여 불규칙 활용] 長たらしい; 退屈だ; あきあきする; うんざりする。

답답-하다

1. [형용사·여 불규칙 활용] 気がかりだ; 心配だ。

2. [형용사·여 불규칙 활용] 息苦しい; 息が詰まる。

찰리 채플린 [Charlie Chaplin]

1. チャーリー・チャップリン

터-뜨리다

1. [타동사] 破裂させる; 爆発させる。

그날-그날

1. [명사] その日その日; 毎日; 一日一日。

手先の動き → 手先 출처:두산동아

손놀림.

2012년 2월 4일 보낸 편지입니다.(366조회)

매주 토요일엔 독자가 쓴 아침편지를 배달해드립니다.
毎週土曜日には、読者が書いた朝の手紙を配達いたします。

오늘은 이효정님께서 보내주신 아침편지입니다.
今日は、イ・ヒョジョンさまから、送っていただいた朝の手紙です。

세상을 바꾸는 단 한 가지 방법
世の中を変える唯一の方法

“착한 아들을 원한다면
”よい子供たちをのぞむなら

먼저 좋은 아빠가 되는 거고,
まずいいパパになることで

좋은 아빠를 원한다면
いいパパを望むなら

먼저 좋은 아들이 되어야겠지.
まずいい子供に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でしょう

남편이나 아내, 상사나 부하직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야.
夫や嫁、上司や部下の場合も同じだ

간단히 말해서 세상을 바꾸는
簡単に言えば世の中を変える

단 한 가지 방법은
唯一の方法は

바로 자신을 바꾸는 거야”
まさに自分を変えることだ”

- A.G. 로옴메르스의《어린왕자-두번째 이야기》중에서 -
- A.G.ロームメルスの〈幼い王子-2番目の話〉より -

*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 夢をかなえるためには

먼저 꿈을 말하고, 꿈을 적고,
まず夢を話して、夢を記録して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합니다.
いい人に出会わないといけないといいます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いい人に会うためには

자신이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自分がまずいい人にな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세상을 바꾸는 단 한 가지 방법!
世の中を変える唯一の方法!

내 안에 있습니다.
私の中にあります。

착-하다

1. [형용사·여 불규칙 활용] 善良だ; おとなしい。

적다

1. [타동사] 書く; 書きとめる; 記録する。

Alejandro Guillermo Roemmers